

대학생의 정체감 스타일에 관한 연구 : 자아정체감 지위와 우연기술을 중심으로*

이 상 회¹⁾

박 진 희²⁾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체감 스타일을 살펴보고, 정체감 스타일과 자아정체감 지위와의 관계 그리고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우연기술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474명(남 263명, 여 211명)을 대상으로 정체감 스타일 척도, 자아정체감 지위 척도, 우연기술 척도로 구성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지향적 스타일은 규범지향적 스타일, 흥미/회피지향적 스타일과 유의미한 상관을 갖고 있었으나 규범지향적 스타일과 흥미/회피지향적 스타일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둘째, 정체감 스타일의 분포에서 유의미한 성차가 확인되었다. 셋째,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정체감지위 분포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Berzonsky의 이론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넷째, 유실과 혼미지위에서 관여수준에 따라 정체감 스타일의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다섯째, 정체감 스타일에 따라 우연기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인의 정체감 연구에서 정체감 스타일의 유용함을 알 수 있었으며, 미래에 진로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새로운 지침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대학생, 정체감 스타일, 자아정체감 지위, 우연기술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사업비)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167).

1) 교신저자 :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교수 (E-mail : sanglee@kw.ac.kr)

2) 광운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석사

I. 서론

자아정체감이 청소년 또는 청년기의 주요한 심리적 발달과제로 제시된 이후, 자아정체감 발달에 대한 연구는 청년심리학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진전되어 왔다(박아청, 2004). 대표적으로 Marcia(1980)는 Erikson의 관점을 보다 정교화하여 정체감 획득단계를 위기와 관여의 두 가지 차원을 사용하여 분류하였다. 이 두 차원을 통하여 정체감 지위(identity status)는 성취(achievement), 유예(moratorium), 유실(foreclosure), 혼미(diffusion)의 네 지위로 구분되었으며, 이후 Marcia의 정체감 지위 개념은 많은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Marcia의 정체감 지위 접근 방식이 Erikson의 이론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었으며(Blasi & Glodis, 1995; van Hoof, 1999), 이에 정체감 지위의 단계를 보다 세분화시키는 연구들과 정체감 형성을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구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Berzonsky(1992a)는 개인의 정체감 발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달지위로 단순히 분류하는 것 보다는 정체감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자신을 이론화하면서 정체감의 문제에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erzonsky(1990)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은 근본적인 자기 이론(self theory)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 이론은 자신과 관련된 가정과 구조, 가설로 구성된 개념구조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Berzonsky(1990)는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기구조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방식의 차이를 인지

성향에 따라 정보지향적, 규범지향적, 혼미/회피지향적의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로 구분하였다.

정체감 스타일은 정체성과 관련된 이슈를 처리할 때 개인이 일반적으로 쓰는 전략 혹은 가장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정보지향적(information-oriented) 스타일은 탐색에 대한 강한 동기와 함께 활동적으로 정보를 찾고, 처리하고, 자기-관련 정보를 평가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규범지향적(norm-oriented) 스타일은 부모와 같은 중요한 타인의 기대나 특정 기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특성화된다. 또한 변화에 저항적이며 현재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에 도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방어적이다. 마지막으로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diffuse/avoidance-oriented)은 미래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장기적인 결과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의 과정을 확인할 때 까지 미루는 경향을 나타낸다. Berzonsky의 정체감 스타일은 정체감 형성과 관련된 문제를 개인이 처리하는 인지과정의 측면으로 재조명하여 설명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Berzonsky, 1989). 그러나 국내에서 정체감 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Berzonsky의 정체감 스타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였다.

Berzonsky에 따르면 개인은 정보에 접근하는 세 가지 형태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정체감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사실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은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개념화할

수 없으며, 오히려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Berzonsky, 1989). 예로 정보지향적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은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과는 부적인 상관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정보지향적 접근은 사회적 규범의 고수에 대해서는 정적인 상관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정보지향적 접근과 규범지향적 접근이 모두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전략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경험적인 증거들은 정보지향적 스타일과 규범지향적 스타일간에 체계적으로 종합된 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Berzonsky, 1989, 1994, 2004a, b). 마찬가지로 정보지향적 스타일과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몇 결과에서는 부적인 상관이 보고되었으나(Berzonsky, 1989, 1992a),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들(Jakubowski & Dembo, 2004)도 보고되어 여전히 정체감 스타일 간의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정체감 세 가지 스타일 간의 관련성에 대한 확인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스타일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정체감 형성에서 성차는 없는 것으로 기대되며(Erikson, 1968), 따라서 정체감 스타일에서도 성차는 드물게 논의되어지는 주제이다. 그러나 몇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의 점수가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Berzonsky, 1989, 1992a) 이러한 결과물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하여도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더 많은 자유를 허용 받고 감시를 적게 받으며 성장하기 때문에 성역할 사회화를 통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볼 수 있다(Berzonsky, 2008). 또한 Phillips와 Pittman(2007)은 여성은 정보지향적 스타일이 좀 더 많고, 남성은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이 더 많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초기와 중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며(Jones & Streitmatter, 1987) 이것은 아마도 여자가 더 빨리 성숙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몇 연구에서 정체감 스타일의 성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종합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국내에서는 정체감 스타일의 성차를 확인한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정체감 스타일의 분포에 성차가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은 Marcia의 4개 정체감 지위를 잘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성취나 유예에 분류되는 자기탐색적인 개인은 정보지향을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활발하게 탐색하고 정교화하며, 정체성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나 개인적 문제를 해결할 때 자기 관련 정보를 활용한다. 유실지위의 개인은 규범지향적 스타일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되는데 그들의 주된 관심은 중요한 타인이나 준거 집단의 기대와 지시에 순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미지위의 개인은 개인적인 문제나 기본적 정체성과 관련된 질문을 직접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가능한 결정을 미루고 늦추려고 애쓰기 때문에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과 관련될 수 있다(Berzonsky, 1989). 결과적으로 정체감 스타일과 정체감 지위는 이론적으로 명확한 관련성을 가정할 수 있지

만, 실제로 나타나는 관계의 양상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스타일에 따라 자아정체감 지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나타나는 관계의 양상이 Berzonsky(1992a)의 이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한편, Berzonsky(1992b)는 정체감 지위분류에서 관여와 지향하는 탐색의 방식은 서로 다른 차원이라고 주장하였고, 따라서 정체감 스타일 검사(ISI)에서 정체감 지위로 정의되어온 자기탐색 요소를 관여와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관여는 자신의 신념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자신이 결정한 직업이나 신념에 개인이 투자하는 정도를 말한다(Marcia, 1966). 예를 들어, 유예나 성취지위의 사람들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보지향적인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다. 그러나 정체성 지위와 관련된 과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관여수준에 따라 과정지향에 차이를 보일 수 있는데 관여 혹은 개인의 자기 이론에 관한 구조적 견고함이 정보지향적 스타일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Berzonsky, 1989; Neimeyer, Prichard, Berzonsky, & Metzler, 1991). 즉 정보지향적 스타일과 정체성 지위 간의 관계는 관여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몇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관여의 효과를 통제하기 전까지는 유예지위와 정보지향적 스타일의 유의미한 관계를 얻지 못했다(Berzonsky, 1989, 1990). 이미 언급된 것처럼 정체감 관여가 높은 것은 이미 무엇인가를 결정하여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인 정보지향적 접근의 사용을 제한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유예지위를 대

으로 한 연구에서 관여가 정보지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Berzonsky 1992a; Neimeyer et al, 1991). 한편, 박진희와 이상희(2013)의 연구에서 성취지위 대학생의 경우 정보지향적 스타일만이 아닌 규범지향적 스타일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정보지향적 접근과 규범지향적 접근이 모두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전략과 관련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성취지위더라도 관여가 높은 경우 새롭게 정보를 탐색하기보다는 기존의 결정을 고수하려는 규범지향적 접근을 선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미 결정된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비효과적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개인의 정체감 스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여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는데, 동일한 정체감 지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관여수준의 차이에 따라 정체감 접근 스타일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지위별로 관여수준을 고/저로 나눈 후, 이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정체감 스타일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나 선행연구들은 정체감 스타일이 방어기제나 자존감, 정서, 적응 등과 같은 다양한 웰빙(well-being) 지표들과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지향적 스타일의 청소년들은 문제중심 대처 전략과 적응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것이 발견된 반면,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의 청소년들은 부적응적인 방어기제를 사용하고 회피지향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발견되었

다(Berzonsky, 1992a; Berzonsky & Kinney, 1994). 또한 정보지향적, 규범지향적 정체감 스타일의 활용은 자아존중감을 높게 하고 우울 반응과 신경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erzonsky & Kinney, 1994), 대조적으로,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은 음주 소비의 증가(Jones, Ross, & Hartmann, 1992) 및 약물 사용(White, 1994)과 관련이 있고,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우울 반응을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zonsky & Kinney, 1994; Nurmi, Berzonsky, Tammi, & Kinney, 1997). 이처럼 자아정체감이 잘 확립될수록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Berzonsky, 1992a), 정체감 스타일은 심리적인 안녕(psychological well-being)과 정신건강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 영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중 최근 들어 다양한 기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열려있는 자세와 끊임없는 변화와 모호함에 대한 인내성, 그리고 활발한 탐색 등이 중요한 영역으로 새롭게 관심을 받고 있다(Blustein, 1997). 사실 근래의 무수한 자기계발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우연적 사건을 긍정적인 기회로 활용하는 것 등을 점차 강조하는 추세이다(Krumboltz, 2009).

Bandura(1982) 또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우연적 사건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강조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회(chance)를 얻는 것이 인간의 삶의 경로를 형성하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진로 분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연적 사건이나 예기치 않았던 기회의 영향을 어디에서나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이 삶의 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계획된 우연 이론(planned happenstance theory)에서는 우연이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 계획된 우연 이론에 따르면 우연에 대처하는 기술은 적극적인 탐색을 촉진시킬 수 있고(Mitchell, Levin, & Krumboltz, 1999; Krumboltz, 2009),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인을 더욱 적극적이며 도전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준다(김보람, 2012).

우연대처 기술은 호기심(새로운 학습의 기회를 탐색하는 것), 인내성(난관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 유연성(태도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낙관성(새로운 기회에 대해 가능성을 보고 획득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 그리고 위험감수(불확실한 결과 앞에서 행동을 취하는 것)의 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체감 스타일은 정체감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인지적 처리과정으로 자신을 이론회화하면서 정체감의 문제에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우연기술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우연기술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경험에 대해 능동적이며 열려있는 자세는 성격 5요인 모델의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과도 유사한 개념이며 개방성은 삶의 만족에 중요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내성과 관련이 높은 성실성이나 정서적 안정성은 삶의 만족뿐만 아니라 직업 만족도 잘 설명하고 있었으며, 호기심과 연관된 외향성(extraversion)도 삶의 만족과 직업만

죽을 잘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Judge, Heller, & Mount, 2002). 이처럼 우연대처 기술이 웰빙, 심리적 적응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erzonsky(1997)는 정체감과 관련된 결정을 하거나 자기구조 수정이 필요할 때, 활발하게 탐색하여 새로운 의견이나 정보를 수용하고 자기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지향적 스타일이 가장 바람직한 정체감 스타일이라고 설명하였다(Berzonsky, 1992a). 반면 규범지향적 스타일은 개인적 관여를 확고하게 지키고, 대안적인 선택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결정의 과업을 해결하는 데 상대적으로 무의식적인 수단을 사용한다(Berzonsky & Ferrari, 1996). 또한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은 자신의 문제나 정체감과 관련된 질문을 직접 다루는 것을 회피하고 인생에 대한 깊은 탐구를 가능한 미루려고 한다(Berzonsky, 1992a). 따라서 Berzonsky에 따르면 정보지향적 스타일이 가장 높은 우연기술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규범지향적 스타일과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 순서로 우연기술이 낮을 것을 가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체감 스타일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개인의 우연기술의 차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 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정체감 스타일에 성차가 있을 것인가?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의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자아정체감 지위의 분포는 어떠한가? 동일한 자아정체감 지위라도 관여 수준에 따라 정체감 스타일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에 따라 우연기술에는 차이가 있을 것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 49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설문에 불성실한 응답, 일관되지 않은 응답을 한 설문들을 제외하고 총 47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대상의 학년 및 성별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정체감 스타일 척도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서 Berzonsky(1989, 1992b)가 개발하고 개정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n(%)
남학생	70(14.8)	50(10.5)	69(14.6)	74(15.6)	263(55.5)
여학생	70(14.8)	48(10.1)	40(8.4)	53(11.2)	211(44.5)
전 체	140(29.5)	98(20.7)	109(23.0)	127(26.8)	474(100)

한 정체감 스타일 검사(Identity Style Inventory 3: ISI 3)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문항은 연구진의 번역과 이중언어 사용자의 역번역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자아정체감 스타일 척도(ISI 3)는 정보지향적, 규범지향적, 혼미/회피지향적의 세 가지 스타일로 구분한다. 분류는 세 가지 하위척도의 각 항목을 합친 후에 원점수를 표준화 점수로 환산한 후, 환산된 스타일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스타일로 분류하게 된다. 척도는 정보지향적 11문항, 규범지향적 9문항, 혼미/회피지향적 10문항 그리고 관여 10문항을 포함하여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사숙고 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지금은 내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Berzonsky(1997)가 보고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정보지향적 .70, 규범지향적 .64, 혼미/회피지향적 .76, 관여 .7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보지향적 .69, 규범지향적 .51, 혼미/회피지향적 .67, 관여 .72로 나타났다.

자아정체감 지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지위를 측정하기 위해 Bennion과 Adams(1986)의 자아정체감 지위 척도의 확장 개정판(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EOM-EIS2)을 신행우(2001)가 번역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EOM-EIS2는 크게 관념정체감과 대인정체감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총합으로 전체 정체감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직업, 종교, 정치 및 철학적 생활양식

의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념정체감 척도의 32문항만을 사용하였다(예: 심사숙고한 끝에, 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나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 내게는 정말로 내 마음에 꼭 드는 생활 방식이 아직 없다). 응답자가 네 가지 지위 점수들 중 하나에서만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얻으면 그 사람은 그 정체감 지위로 분류된다. 정체감 지위들은 혼미-유실-유예-성취의 순으로 순서를 매기고, 만일 응답자가 한 개 이상의 지위 점수에서 절단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낸 지위들 중 가장 성숙이 낮은 정체성 지위를 부여받게 된다. Adams와 Bennion, Huh(1989)는 순수한 유예지위와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유예지위를 대개는 동등하게 유예지위로 취급할 수 있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미분화유예를 유예지위에 포함하여 이후 분석을 진행하였다(Adams et al., 1989). 신행우(2001)가 번안한 자아정체감 지위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α)는 관념정체감의 경우 성취 .71, 유예 .55, 유실 .80, 혼미 .67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성취 .66, 유예 .51, 유실 .75, 혼미 .62로 나타났다.

우연기술 척도

본 연구에서는 Mitchell 등(1999)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김보람(2012)이 개발한 계획된 우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Krumboltz의 우연적 학습 이론(happenstance learning theory)에 기반하여 진로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 다양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경험하는 개인의 역량 내지 태도와 관련된 다섯 가지

기술을 측정한다. 하위요인으로는 호기심, 인내성, 유연성, 낙관성, 위험감수가 있으며 각 5개의 문항씩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내 진로의 방향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행동의 결과가 불확실하더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해 볼 것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에 있어 유용한 우연적 사건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척도 개발 과정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Cronbach α)는 호기심 .86, 인내성 .87, 유연성 .84, 위험감수 .78, 낙관성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호기심 .78, 인내성 .86, 유연성 .83, 위험감수 .83, 낙관성 .88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의 전반적인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교차분석,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우연기술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연구에 사용된 각 변인들 간의 상관을 확인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정체감 스타일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정보지향적 스타일은 규범지향적 스타일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규범지향적 스타일과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지향적 스타일은 성취지위, 유예지위, 관여, 우연기술과는 유의미

표 2.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변인 간 상관관계

(N = 474)

변인	1	2	3	4	5	6	7	8	9
1. 정보지향	1								
2. 규범지향	.35**	1							
3. 혼미/회피지향	-.30**	-.07	1						
4. 성취	.45**	.34**	-.16**	1					
5. 유예	.17**	.02	.08	-.08	1				
6. 유실	-.21**	.07	.36**	.02	.11*	1			
7. 혼미	-.40**	-.19**	.38**	-.56**	.23**	.11*	1		
8. 관여	.48**	.40**	-.31**	.67**	-.23**	-.14**	-.60**	1	
9. 우연기술	.48**	.19**	-.12**	.30**	.11*	-.24**	-.22**	.40**	1
평균(M)	3.38	3.20	2.60	3.09	2.88	2.09	2.99	3.08	3.72
표준편차(SD)	.44	.46	.48	.57	.47	.59	.60	.50	.48

* $p < .05$. ** $p < .01$.

한 정적 상관을, 유실지위, 혼미지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규범지향적 스타일은 성취지위, 관여, 우연기술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혼미지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유예지위와 유실지위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은 유실지위, 혼미지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성취지위, 관여, 우연기술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성취지위는 우연기술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나, 혼미지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유예지위는 유실지위, 혼미지위, 우연기술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유실지위는 혼미지위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우연기술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관여는 성취지위, 우연기술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나, 유예지위, 유실지위, 혼미지위와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다.

2. 성별에 따른 정체감스타일의 분포

성별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별로 교차분

석을 통해 카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자아정체감 지위의 분포차이를 살펴본 결과, 자아정체감 스타일과 성별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chi^2 = 8.13, p = .017$). 남자와 여자 모두에서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의 경우 다음으로 정보지향적 스타일이 많았고, 여자의 경우 다음으로 규범지향적 스타일이 많았다.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자아정체감 지위의 분포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자아정체감 지위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체감 3개 스타일과 자아정체감 4개 지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포차이의 유의미성과 효과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 값과 분할계수, Cramer V값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정체감 스타일과 자아정체감 지위 분포는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Berzonsky(1992a)의 가정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정보지향적 스타일은 성취지위, 유예지위가 많고, 혼미지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지향적 스타일은 성취지위가 많고, 혼미지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은 성취지

표 3. 성별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의 분포 n(%)

성별	정체감 스타일	정보 지향적	규범 지향적	혼미/회피 지향적	합계	분석 결과	
남자		94(19.8)	65(13.7)	104(21.9)	263(55.5)	χ^2	8.13*
여자		51(10.8)	69(14.6)	91(19.2)	211(44.5)	분할계수	.13
전체		145(30.6)	134(28.3)	195(41.1)	474(100)	Cramer V	.13

* $p < .05$.

표 4.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자아정체감 지위의 분포

n(%)

정체감스타일 \ 정체감지위	성취	유예	유실	혼미	전체	분석 결과	
정보지향적	33(7.0)	41(8.6)	34(7.2)	37(7.8)	145(30.6)	χ^2	71.5***
규범지향적	23(4.9)	27(5.7)	27(5.7)	57(12.0)	134(28.3)	분할	.36
혼미/회피지향적	6(1.3)	23(4.9)	35(7.4)	131(27.6)	195(41.1)	계수	
전체	62(13.1)	91(19.2)	96(20.3)	225(47.5)	474(100)	Cramer V	.28

*** $p < .001$.

위, 유예지위는 적고 혼미 지위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자아정체감 지위와 관여 수준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의 분포

동일한 자아정체감 지위라도 관여수준에 따라 정체감 접근 스타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관여수준을 전체

대학생의 중앙치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관여 고/저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우선 자아정체감 지위별로 고관여와 저관여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취지위에서는 고관여로 분류된 경우가 저관여보다 월등하게 많았으며, 유예지위와 유실지위는 고관여와 저관여의 분류가 비슷하였고, 혼미지위는 저관여가 고관여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한편 자아

표 5. 자아정체감 지위별 관여수준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의 분포

n(%)

	관여	정보지향형	규범지향형	혼미/회피지향형	
성취 (72)	고(51)	29(46.8)	19(30.6)	3(4.8)	$\chi^2=4.99$
	저(11)	4(6.5)	4(6.5)	3(4.8)	분할계수=.27 Cramer V=.28
유예 (90)	고(47)	21(23.1)	15(16.5)	11(12.1)	$\chi^2=.30$
	저(44)	20(22.0)	12(13.2)	12(13.2)	분할계수=.06 Cramer V=.06
유실 (96)	고(52)	24(25.0)	18(18.8)	10(10.4)	$\chi^2=14.63^{**}$
	저(44)	10(10.4)	9(9.4)	25(26.0)	분할계수=.36 Cramer V=.39
혼미 (225)	고(40)	10(4.4)	18(8.0)	12(5.3)	$\chi^2=16.25^{***}$
	저(185)	27(12.0)	39(17.3)	119(52.9)	분할계수=.26 Cramer V=.27

** $p < .01$. *** $p < .001$.

정체감 지위별 관여수준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의 분포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실지위와 혼미지위에서 관여수준의 고저와 정체감 스타일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으나, 성취지위와 유예지위의 경우 관여수준에 따른 정체감 스타일 분포에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유실지위라도 고관여의 경우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관여의 경우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미지위에서도 고관여의 경우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관여의 경우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타일 순서로 나타났다. 이를 우연기술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낙관성, 위험감수, 인내심에서는 정보지향적 스타일과 규범지향적 스타일이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기심에서는 정보지향적 스타일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규범지향적 스타일,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연성에서는 정체감 접근 스타일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5. 정체감 스타일별 우연기술의 차이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의 우연기술 차이를 살펴본 결과, 정체감 스타일에 따라 우연기술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연기술은 정보지향적 스타일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규범지향적 스타일, 혼미/회피지향적

Marcia의 접근 방식이 Erikson의 정체감 이론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들이 제기됨에 따라(Blasi & Glodis, 1995; van Hoof, 1999), Berzonsky(1992a)는 개인의 정체감 발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분류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정체감 스타일에 대한 연

표 6. 정체감 스타일별 우연기술의 차이

($N = 474$)

구분	정보지향 ($n=145$) $M(SD)$	규범지향 ($n=134$) $M(SD)$	혼미/회피지향 ($n=195$) $M(SD)$	F	$Scheffé$
낙관성	4.12 (.67)	3.96 (.61)	3.70 (.70)	17.52***	1, 2>3
위험감수	3.79 (.68)	3.64 (.66)	3.39 (.59)	17.45***	1, 2>3
유연성	3.79 (.70)	3.60 (.67)	3.72 (.61)	2.80	
인내심	3.93 (.55)	3.79 (.51)	3.39 (.55)	47.33***	1, 2>3
호기심	4.02 (.56)	3.73 (.59)	3.52 (.60)	29.75***	1>2>3
전체	3.93 (.44)	3.75 (.44)	3.54 (.47)	31.26***	1>2>3

*** $p < .001$.

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스타일을 중심으로 하여 정체감 스타일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자아정체감 지위의 분포를 확인하여 정체감 스타일과 정체감 지위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체감 스타일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우연기술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체감 스타일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Berzonsky, 1989). 이전의 연구들에서도 정체감 스타일 간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존재하고 있음이 보고되었으나, 관련성의 양상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아 정체감 스타일 간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정체감 스타일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정보지향적 스타일은 규범지향적 스타일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몇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Berzonsky, 1994, 2004a, 2004b), 정보지향적 접근이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전략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규범지향적 접근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며, 탐색에 대한 강한 동기와 활동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모습은 결정을 미루는 혼미/회피지향적 접근과는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규범지향적 스타일과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이전의 결과들에서는 정적인 상관을 보고하기도 하고(Berzonsky, 1989), 부적인 상관을 보고하기도 하여(Bosch & Card, 2012) 규범지향적 스타일과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 간의 관계성은 가장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더군다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유의미한 관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대학생이 되어서도 부모 등의 중요한 타인의 기대나 기준에 맞추는 순응적인 방식이 다소 강하게 권유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이은경, 박성연, 2011), 결정에 대한 회피나 미적거림과는 관계없이 이미 대학생이 되면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학습된 기준이나 기대를 맞추는 전략을 갖추게 되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달리 정체감 스타일 간의 관계성이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정체감 스타일 분포에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선행 연구들은 여성은 정보지향적 스타일이 좀 더 많고, 남성은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이 더 많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는데(Berzonsky, 2008; Phillips & Pittman, 2007) 우리나라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에 속한 대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학생의 대다수가 정체감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회피하거나 미루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가장 주요한 관심사가 진로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최

근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높은 청년 실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대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결정을 함께 회피하게 하고 가능하면 결정을 미루도록 만들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다음으로 남학생의 경우는 정보지향적 스타일에 속하는 대학생이 많았으나, 여학생은 규범지향적 스타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Marcia(1980)의 이론에 근거하여 해석해보면, 남성은 위기와 수행을 거쳐 정체감을 형성하지만 여성은 정체감 확립을 위해 반드시 위기를 경험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설명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더 많은 규범지향적 스타일을 강요하는 문화일 수 있다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따라서 정체감 스타일에서의 성차는 개인적 특성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와 같은 환경 맥락적 요인들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비교문화적인 확인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체감 스타일과 Marcia의 자아정체감 지위는 서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가정된다(Berzonsky, 1989). 본 연구에서 상관을 살펴본 결과, Berzonsky(1992a)의 이론처럼 정보지향적 스타일은 성취지위, 유예지위와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으며,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 또한 혼미지위와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규범지향적 스타일은 유실지위와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었으며 오히려 성취지위와 정적 상관을 갖고 있었고, 더군다나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이 유실지위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정체감 스타일별로 정체감 지위 분포를 살

펴본 결과, 정보지향적 스타일은 성취지위, 유예지위가 많고, 혼미지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범지향적 스타일은 성취지위는 많고, 혼미지위는 적은 것으로,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은 성취지위, 유예지위는 적고 혼미지위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erzonsky(1992a)의 이론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장 주목할 점은 규범지향적 스타일에 관한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규범지향적 스타일은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특성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보인다. Berzonsky(1992a)는 규범지향적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유실지위에 속할 것을 가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성취지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 표집의 제한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을 것이나 박진희와 이상희(2013)의 연구에서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성취지위 대학생은 정보지향적 스타일만이 아닌 규범지향적 스타일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정보지향적 접근과 규범지향적 접근 모두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전략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성취지위더라도 어릴 때부터 어른들의 의견과 기준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규범지향적 스타일은 정체감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된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학습되어 사용하는 일상적인 전략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넷째, 관여수준에 따라 같은 자아정체감 지위라도 정체감 스타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정체감 관여가 높은 것은 이미 무엇인가를 결정하여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인 정보지향적 접근의 사용을 제한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Berzonsky, 1989; Neimeyer et al, 1991). 이처럼 같은 정체감 지위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관여수준의 차이에 따라 정체감 접근 스타일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지위별로 관여수준을 나눈 후 정체감 접근 스타일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우선 정체감 지위에 따른 관여 고/저 수준의 분포에 차이가 있었다. 성취지위에는 관여고의 경우가 관여저보다 유의미하게 많았으며, 혼미지위는 관여저의 경우가 관여고보다 유의미하게 많이 있었다. 또한 자아정체감 지위 중 유실과 혼미지위에서 관여수준의 고저와 정체감 스타일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주로 성취와 유예지위를 대상으로 하여 관여가 높은 경우 정보지향적 스타일의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취와 유예지위 모두에서 관여수준이 정체감 스타일과 유의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실지위와 혼미지위 모두에서 관여가 낮은 경우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의 사용이 많고, 관여가 높은 경우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체감 지위가 혼미이면서 관여가 낮은 경우 주로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대학생의 1/4(25.1%)에 해당하고 있었다. 즉 혼미지위면서 관여가 낮은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미래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장기적인 결

과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감정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고, 행동의 과정을 확인할 때 까지 미루는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자아정체감 지위라도 관여수준에 따라 사용하는 정체감 스타일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감 연구는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탐색하고 접근하여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와 함께 관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연구주제로써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생들의 세 가지 정체감 스타일별로 우연기술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정보지향적 스타일의 우연기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규범지향적 스타일, 혼미/회피지향적 스타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발달특성은 Berzonsky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체감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탐색을 통해 새로운 의견이나 정보를 수용하고,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가 성숙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 정체감은 과정, 구조, 기능, 맥락 그리고 내용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호의존적인 차원을 포함하는 다각적인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이 중 정체감 스타일은 정체감의 한 차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체감 스타일이 정체감의 다각적 차원을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을 사용하여 정체감 스타일의 설명력과 영향에 대한 확인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 필요한 제안을 몇 가지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소수의 대학에서 연구대상을 수집하였다. 따라서 이 결과를 전체 청소년이나 일반인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에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고등학생이나 청소년기, 일반인들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스타일을 측정하기 위해 외국의 척도를 번역과 역번역의 과정을 걸쳐 사용하였다. 그러나 규범지향적 스타일의 내적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번안 과정에서 가능한 원척도를 준수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으나, 외국의 척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현실이나 문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척도의 문항을 수정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 지위를 지위분류 척도를 사용하여 분류하였는데, 네 가지 지위 외에 미분화/낮은 프로파일 지위에 분류되는 학생들이 있었다. Adams 등(1989)의 기준을 따라 미분화/낮은 프로파일을 유예지위에 포함시켜 분석하였으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자아정체감 지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류하는 새로운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자아정체감 지위를 사용하여 정체감 스타일에 대한 확인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체감 스타일에 따른 우연기술의 차이만을 확인해 보았다. 미래에는 정체감 스타

일에 따른 진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확장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자아정체감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달지위로 분류하는 것 이외에 정체감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응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인 정체감 스타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약 50%에 해당하는 혼미지위 대학생의 경우 많은 수가 혼미/회피지향적 정체감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미래의 진로 상담 및 지도를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준다. 즉 정보지향적 스타일과 규범지향적 스타일의 정체감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돕는 것이 대학생들의 정체감 발달에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보람 (2012). 계획된 진로 우연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아청 (2004). 청년기 자아정체감의 발달단계의 특성분석. 교육심리연구, 18(1), 301-312.
- 박진희, 이상희 (2013).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지위와 자아정체감 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성숙의 차이. 상담학연구, 14(2), 753-770.
- 신행우 (2001). 자아정체성 지위 척도(EOM-EIS2)의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

- 달, 14(2), 137-152.
- 이은경, 박성연 (2011).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따른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청소년의 우울성향, 우울,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8(4), 101-123.
- Adams, G. R., Bennion, L., & Huh, K. (1989).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 reference manual. Logan, Utah: Utah State University.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 Bennion, L. D., & Adams, G. R. (1986). A revision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 183-197.
- Berzonsky, M. D. (1989). Identity style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4(3), 267-282.
- Berzonsky, M. D. (1990). Self-construction over the life-span: A process perspective on identity formation. *Advances in Personal Construct Psychology*, 1, 155-186.
- Berzonsky, M. D. (1992a). Identity style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Personality*, 60, 771-788.
- Berzonsky, M. D. (1992b). *Identity style inventory (ISI3): Revised version*. Unpublished manuscrip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Cortland, NY.
- Berzonsky, M. D. (1994). Self-identity: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ss and cont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8(4), 453-460.
- Berzonsky, M. D. (1997). Identity development, control theory, and self-regulation: An individual differences perspectiv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3), 347-353.
- Berzonsky, M. D. (2004a). Identity processing style, self-construction, and personal epistemic assumptions: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 303-315.
- Berzonsky, M. D. (2004b). Identity style, parental authority, and identity commi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 213-220.
- Berzonsky, M. D. (2008). Identity formation: The role of identity processing style and cognitive process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3), 645-655.
- Berzonsky, M. D., & Ferrari, J. R. (1996). Identity orientation and decisional strategi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5), 597-606.
- Berzonsky, M. D., & Kinney, A. (1994). *Identity negotiation styles and defense mechanism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CA.
- Blasi, A., & Glodis, K. (1995). The development of identity. A critical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elf as subject. *Developmental Review*, 15(4), 404-433.
-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60-274.

- Bosch, L. A., & Card, N. A. (2012). A meta-analytic review of Berzonsky's Identity Style Inventory (ISI). *Journal of Adolescence*, 35, 333-343.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Jakubowski, T. G., & Dembo, M. H. (200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identity style, and stage of change on academic self-regulation. *Journal of College Reading and Learning*, 35, 5-22.
 - Jones, R. M., Ross, C. N., & Hartmann, B. R. (1992). An investigation of cognitive style and alcohol/work-related problems among naval personnel. *Journal of Drug Education*, 22(3), 241-251.
 - Jones, R. M., & Streitmatter, J. L. (1987).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EOM-EIS for early adolescents. *Adolescence*, 22(87), 647-659.
 - Judge, T. A., Heller, D., & Mount, M. K. (2002).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job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3), 530.
 - Krumboltz, J. D. (2009). The happenstance learning theory.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7(2), 135-154.
 - Marcia, J. E.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 551-558.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pp.159-187). New York: Wiley.
 - Mitchell, K. E., Levin, S., & Krumboltz, J. D. (1999). Planned happenstance: Constructing unexpected career opportunitie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7(2), 115-124.
 - Neimeyer, G. J., Prichard, S., Berzonsky, M. D., & Metzler, A. (1991). Vocational hypothesis testing: The role of occupational relevance and identity orient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3), 318-332.
 - Nurmi, J. E., Berzonsky, M. D., Tammi, K., & Kinney, A. (1997). Identity processing orientation, cognitive and behavioural strategies and well-be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1(3), 555-570.
 - Phillips, T. M., & Pittman, J. F. (2007).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by identity style. *Journal of Adolescence*, 30(6), 1021-1034.
 - van Hoof, A. (1999). The identity status field re-reviewed: An update of unresolved and neglected issues with a view on some alternative approaches. *Developmental Review*, 19, 497-556.
 - White, J. M. (1994). *Psychosocial correlates of criminal behavior: Identity styles of male inmates in the Utah State Pris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tah State University.
- 1 차원고접수 : 2013. 10. 15.
수정원고접수 : 2013. 11. 15.
최종게재결정 : 2013. 12. 04.

A Study of Identity Style: With a Focus on Identity Status and Happenstance Skills

Lee, Sanghee

Park, Jinhui

Dept. of Industrial Organizational Psychology, Kwangw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Berzonsky's identity style and Marcia's identity status, and to understand how identity style was related to happenstance skills.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of identity style by identity status in term of the level of commitment. A total of 474 college students (263 male and 211 femal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identity style, identity status, and happenstance skill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norm-oriented identity style and other identity styles. However, there was no discernible relationship between norm-oriented and diffuse/avoidance-oriented identity styl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identity style.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stinctions in terms of the frequency between identity style and identity status. Fourth, in foreclosure and diffusion statu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erms of the distribution of identity style depending on their commitment level. Fifth, college students with order information-oriented, norm-oriented, and diffuse/avoidance-oriented identity styles reported higher scores on happenstance skills. Through this research, we found the importance of career identity style in identity studies and identified new guidelines for future career counseling.

Keywords: identity style, identity status, happenstance skill